

WEEKLY BUSINESS ISSUE

INSIGHT FOR BUSINESS LEADER



2012-34호

2012.08.25



한양대학교
HANYANG UNIVERSITY

글로벌
경영전문대학원

애플-삼성 특허戰, 국내 판결 정리 "사실상 무승부" 2012.08.24 TechIT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배준현 부장판사)가 오늘(24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삼성과 애플에 각각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삼성의 승리인 양 표현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맞소송건에 대해 각각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고, 또한 삼성이 애플의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측 다 특허침해가 있다는 결론이지요.

“ 애플, 삼성 특허침해"...아이폰4 판매금지(4보) - 연합뉴스
2건 침해 4천만원 배상...관련제품 판금·폐기 명령, 삼성도 애플 인텔
페이스 특허 1건 침해 ...

애플의 관점

결과적으로 애플은 삼성의 표준특허 2 건의 침해에 대해 건당 2 천만원씩, 총 4 천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제품의 판매금지와 폐기처분을 해야 하는데 대상이 아이폰 3Gs 와 아이폰 4, 아이패드 1 과 아이패드 2 입니다. 이미 단종된 제품인터라 사실상 실제 영업에는 지장이 없죠. 현재 애플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아이폰 4s 와 뉴 아이패드입니다.

삼성의 관점

삼성도 애플의 표준특허 1 건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2 천 500 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갤럭시 S2 단말기도 판매금지됩니다. 그러나 디자인 부분의 특허 침해는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따진다면 삼성에게 좀 더 유리한 판결로 볼 수 있을 겁니다.

“ 재판장 "삼성의 특허권 남용 판단 어려웠다" - MK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 배준현 부장판사는 "네덜란드와 미국 법원
이 내놓은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내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판단
이 매우 어려웠다" ...

법원도 고심을 많이 한 듯 합니다.

협의 자체도 애매할 뿐더러 딱히 명확하게 결론이 날 사안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해외 판례도 엇갈립니다. "누가 재판에서 이기고 졌다는 관점을 갖기보다는 양측이 상대방 권리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라고 언급한 배준현 판사의 말에서 고민이 묻어 납니다.

결과呢?

어쨌든 국내에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은 무승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에 따른 실효도 거의 없죠. 시장 규모에 비하면 배상규모도 푼돈 수준이고 판금조치도 단종된 제품이라 별 의미 없습니다. 양사의 주력인 갤럭시 S3, 아이폰 4S, 아이패드 3 의 판매는 계속됩니다.

문제는 미국 법원의 판결입니다. 조 단위의 돈이 걸린 소송이죠. 각 계의 관측은 국내 판결과 비슷하게 날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 일부 승소할 것이라는 전망이죠. 빠르면 오늘 최종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면 정리하겠습니다.



네모속의 세상보기

@photo_jjang

Follow

법원이 삼성이랑 애플 양사 모두에 서로 특허를 침해해서 아이폰4랑 갤럭시S 등 제품 모두 판매 금지 판결을 냈는데 마치 삼성이 애플에 이겨서 아이폰4만 판매 금지된거처럼 기사를 날리고 있다.

24 Aug 12

Reply Retweet Favorite



로이킴형 로이

@royikim

Follow

삼성 애플은 서로 변호사 비용 써가면서 새제품 판매를 돕는 상생 관계였어

24 Aug 12

Reply Retweet Favorite



정명원

@SBSkrugman1

Follow

우리투자증권의 박영주 연구원이 "삼성-애플 특허의 최대승자는 로펌일 것"이란 분석을 내놓네요. 결국 마지막에 양측이 합의를 할 것이고 재판과정에서 양측이 서로 인정되는 일부 특허를 가지고 제3의 업체들에게 사용료를 받게되는 수순을 전망.

24 Aug 12

Reply Retweet Favorite

"아이폰 모뎀칩, 삼성 특허 침해" 2012.08.24 블로터넷

삼성엔 애플이 3GPP 통신 표준에 대한 4 가지 특허와 무선 단말기의 데이터 서비스 제공 방법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애플을 고소했다. 아이폰 3GS 와 아이폰 4, 그리고 1, 2 세대 아이패드가 3G 로 통신하는 칩이 삼성의 비표준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이 소송의 주요 포인트다.

특허 침해 문제가 된 5 가지 기술은 모뎀이 3G 통신망에서 통신할 때 쓰이는 필수 기술로 그 중 4 가지는 삼성이 표준화 기구인 ETSI 에 위탁한 기술이다. 이 소송의 관건은 어떤 기술이냐보다 그 기술이 어떻게 애플의 단말기에 쓰이게 되었는지도. 피고인 애플은 삼성이 문제를 삼은 기술 자체가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 특허의 필수 요소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특허침해라고 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특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프랜드(FRAND)와 인텔의 칩 부분이다.

일단 애플은 문제가 된 통신칩을 인텔의 자회사인 IMC(인텔모바일커뮤니케이션즈, 전 인피니언 모바일 사업부)를 통해 구입했다. 인텔은 삼성에게 라이선스를 받아 통신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다. 인텔은 이를 IMC 를 통해 생산했고 애플은 이 칩을 구입해서 썼기 때문에 이미 특허권 자체가 소진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인텔의 라이선스가 IMC에까지 위탁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문제삼았다. 그런 상황에서 인텔이 IMC를 통해 칩을 만들어 애플에 판매하는 것은 라이선스 계약에서 허용된 제조 위탁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만약 인텔이 직접 이 칩을 만들어서 애플에게 납품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이 라이선스를 다시 IMC로 위탁하고 그 칩을 애플이 썼다면 문제의 요지가 있다는 것이다.

가장 골칫거리인 FRAND 문제도 살펴보자. 삼성이 3G 통신에 관한 기술을 표준 특허로 선언했고 이를 사실상 누구든 라이선스해서 쓸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다. 그 특허를 이용하려는 자는 특허권자에게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면 그 기술로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원은 이를 두고 두 회사가 특허 라이선스를 위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FRAND가 표준 특허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양사가 계약을 맺지 않았으면 특허 침해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정 제품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표준특허인 만큼 특허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두 회사가 어떤 기술을, 얼마에, 어떻게 쓰게 될 것인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의 특허권 주장이 FRAND 선언에 위반했다거나 특별히 애플이 제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결론적으로 통신 모뎀에 들어간 3GPP 기술 4건 모두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냈다. 다만 정보 비트의 배열과 저장 과정에 대한 기술과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전력을 아끼는 기술 등 2가지 특허에 대해서는 신규성이라는 특허 요건이 부족해 특허 자체가 무효될 수 있는 사유가 있어 특허 인정을 하지 않아 2건의 특허가 침해됐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법원은 2 건에 대한 피해액 4 천만원과 아이폰 3GS, 4 그리고 3G 용 아이패드 1 과 2 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고 갖고 있는 재고에 대해 폐기처분할 것을 명령했다. 아이폰 4S 와 3 세대 아이패드에는 문제가 된 인텔의 칩을 쓰지 않았다.

이통사 "아이폰3GS · 4 판금, 당장은 영향 없어" 2012.08.24 동아일보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 갤럭시S2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이 나왔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당분간 이들 제품을 판매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이통사들은 일단 판결문 전문을 분석해봐야 정확한 지침을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선례와 정황을 보면 현재 이통사가 보유한 물량까지 당장 판매할 수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판결문이 애플과 삼성전자등 당사자에게 송달되기까지 일주일가량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이통사가 보유한 재고 물량은 정상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도 "판결 효력이 발생하기까지의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당장 제품을 팔 수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법률 전문가에게 정확한 분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인정해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 아이패드2, 갤럭시S2, 갤럭시탭10.1 등의 판매금지와 폐기를 명령했다.

이통사는 이들 제품이 출시된 지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영업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KT 관계자는 "현재 아이폰은 4S 모델 위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3GS와 4 모델 재고는 대부분 사후서비스(AS)용으로 소량 남아있다"고 말했다.

'세기의 소송' 승소에도 삼성 분위기 '차분' 2012.08.24 동아일보

내부선 '무승부 아니냐' 반응도...美소송 앞두고 신중한 모양새

국내에서 진행된 '세기의 소송'을 사실상 승리로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다소 차분한 분위기다. 애플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대부분 막아냈고 무선통신 특허 침해로 애플 제품 판매금지까지 이끌어내는 등 현재까지 각국에서 진행된 소송 가운데 가장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으나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승소 판결이 나올 때마다 했던 '판결을 환영한다' 정도의 의례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내부에서는 '승소가 아니라 사실상 무승부로 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신중한 표정을 짓는 데 대해 업계에서는 '진짜 세기의 소송'인 미국 소송 평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이 스마트폰 세계 최대 시장이면서 애플의 '안방'이라는 점에서 국내 소송보다 미국 소송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 소송은 이르면 한국 시각으로 25일 오전에 나올 예정이다.

더구나 현재 미국 소송에서는 삼성전자가 다소 불리한 상황이다. '갤럭시탭 10.1'이 판매금지를 당한 상황에서 벌이는 데다, 삼성이 요청한 증거 일부를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삼성전자의 이상하리만치 차분한 분위기는 하루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가 미국 평결이 정반대로 나오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국계 증, "삼성, 미국 소송에서 저도 큰 타격 없을 것" 2012.08.24 조선일보

국내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다소 유리한 판결을 내린 가운데, 미국 법원에서 곧 나올 배심원 평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양측이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가릴 배심원 평결은 현지시각으로 빠르면 24일 공개된다.

사실상 한국보다는 미국 시장이 규모 면에서 양사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법원의 결정보다는 미국 법원에서의 판단에 더 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외국계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공방이 수년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양사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마다 투자자들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노무라금융투자는 양측의 소송이 미국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커 수년간의 법정 다툼이 예상되지만 재판 결과가 양측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노무라금융투자는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 삼성전자가 애플에 27억달러에 달하는 거금을 물어줘야 하더라도 이는 올해 말 삼성전자의 예상 시가총액의 2%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 타격이 없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에게 재판 전개 과정에 과민반응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노무라금융투자는 양측의 소송전이 상호 특허 사용 계약으로 마무리될 경우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두 회사의 지위가 더욱 굳건해져 양사 주가 모두에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증권도 고급 휴대전화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장악력이 더 커질 것으로 봤다. 두 증권사는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200만원으로 정해두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이 구글과 애플의 대리전이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이용해 만들어진다.

바클레이즈캐피탈증권은 “삼성전자가 이길 경우, 구글의 안드로이드 OS가 애플 iOS의 아류가 아니라 독창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이 입증될 것이고, 따라서 애플이 향후 안드로이드와 관련한 다른 회사와의 소송에서 소송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CLSA증권은 이번 법정공방에서 애플의 최대 목표는 삼성전자와 구글이 애플의 제품을 그만 बे끼고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드로이드 OS와 이를 채택한 회사들에 타격을 주려 한다는 것이다. CLSA증권은 “애플이 삼성전자로부터 특허 사용료를 받아내길 원하지만 삼성전자가 아직 독창적인 제품을 만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애플이 원하는 특허권 사용 협약은 1~2년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외국계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200만원 이상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주가분석업체 트레피스(Trefis)는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가 현 주가보다 낮은 1050달러(약 119만원)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애플과 편먹었다 한방 먹은 김앤장

2012.08.24 조선일보

삼성전자와 애플이 진행해온 국내 특허소송 결과에 따라 양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울촌과 김앤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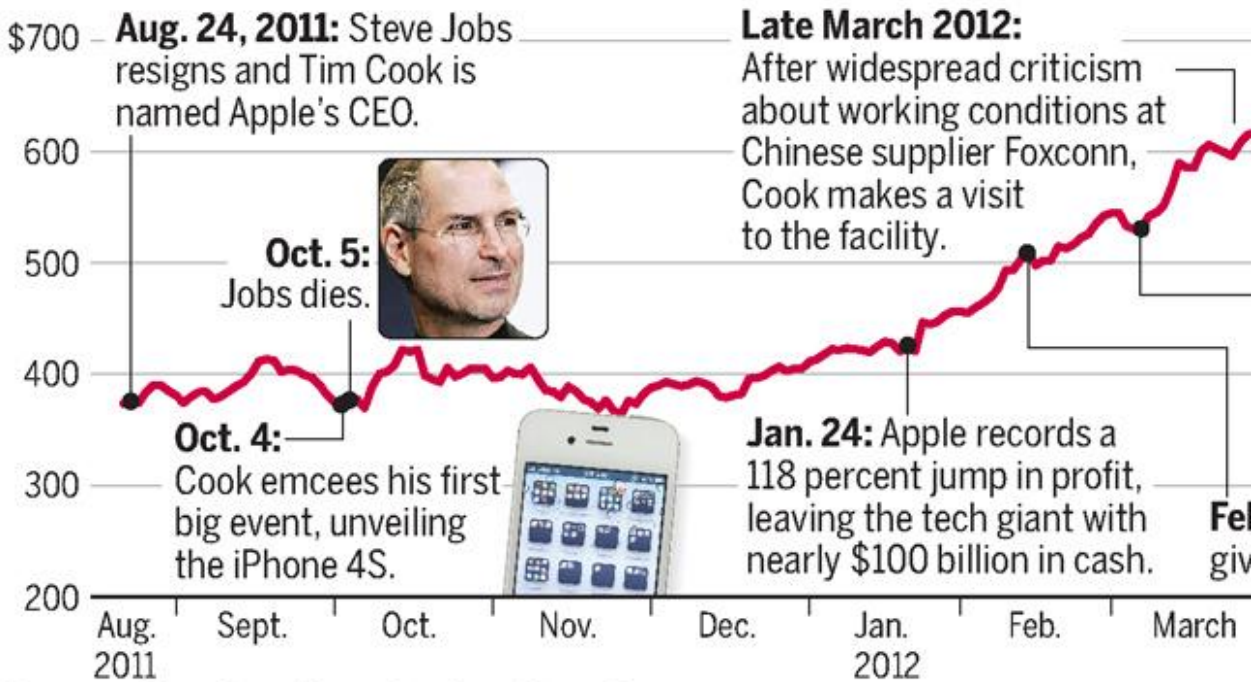
1년 넘게 계속된 법정 공방전에서 광장·울촌은 애플이 삼성의 표준 통신기술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애플은 국내에서 판매 중인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2의 판매금지와 폐기처분이라는 명령을 받았다. 삼성전자 역시 애플의 바운싱백 특허 침해로 이 기술이 적용된 단말기의 판매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옛 제품에 들어갔거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이미 회피된 기술이라 애플측의 소송대리인인 김앤장 입장에선 큰 소득을 얻지는 못했다. 이번 사건은 산업계에서 보기 드문 한국과 미국의 대표 기업간 대결인데다 국내 메이저 로펌인 광장·울촌과 김앤장이 맞붙었다는 점에서 국내 법조계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광장·울촌 연합군이 1심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 김앤장의 공격·방어전략이 빛이 바랬다는 평가다.

김앤장측은 베테랑 변호사인 양영준·장덕순·원유석·정여순·황민서 변호사를 이번 소송에 투입하면서 공을 들였다. 이번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식재산권 분야 전 세계 영향력 있는 50인에 선정되기도 했던 삼성전자 법무팀장 출신의 김모 변호사도 김앤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관심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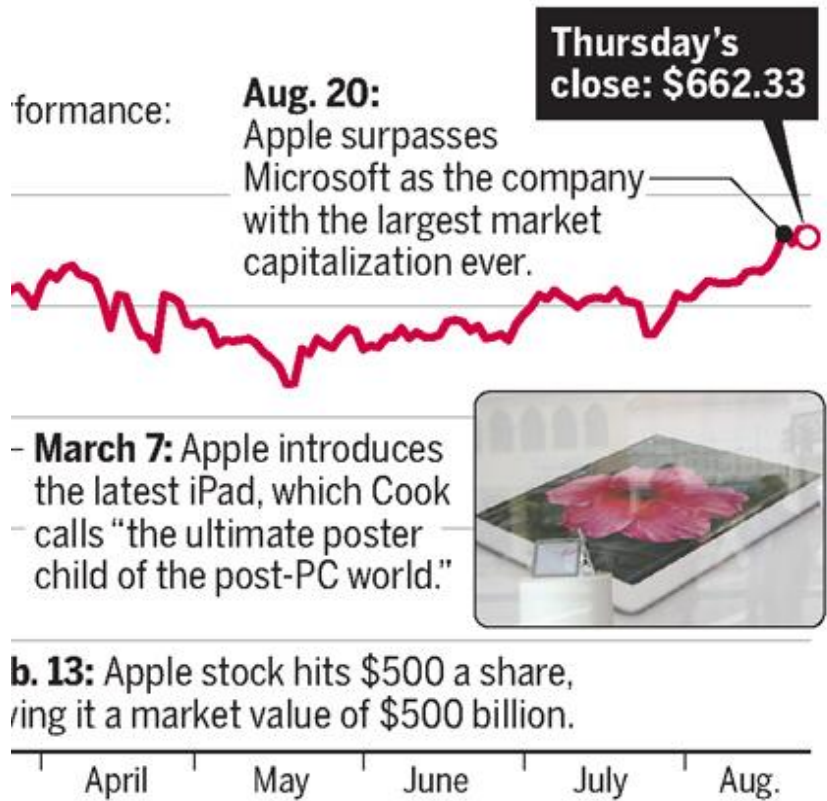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최종 선고는 아니지만 광장·울촌의 변론이 힘을 발휘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애플의 소송대리인인 김앤장측도 향후 항소 등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반격을 할 지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Apple continues its climb with Cook at the reins

Some highlights of Tim Cook's first year as CEO, along with Apple's daily stock per



Sources: Bloomberg News; Bay Area News Group reporting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들 해외투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삼성전자 · 현대차 · LG화학 등 美 · 中에 집중
국내는 투자 규제에 '경제민주화'까지 겹쳐



국내 대기업들이 2010년 이후 결정한 해외투자 금액이 3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을 제외하면 민간 부문, 특히 제조업 분야의 해외투자가 단기간에 이처럼 늘어난 것은 처음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과감한 투자 확대와 공격적인 시장 개척으로 극복한 한국 기업들이 유럽 재정위기 여파 속에서도 '글로벌 경영'을 지속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 중국에 전방위 투자

22일 경제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발표된 주요 대기업들의 해외투자 금액은 300억달러 규모로 파악됐다. 삼성전자는 시스템반도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4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지난 21일 발표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들어가는 고성능 모바일용 칩 수요가 증가하는 데 맞춰 메모리반도체 라인을 시스템반도체 라인으로 전환하는 투자다.

앞서 GS글로벌은 3억1000만달러를 투입해 미국 오클라호마에 있는 네마하 광구 지분 20%를 인수했다. LG화학도 2013년까지 3억달러를 들여 미국 홀랜드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중국 투자는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LG화학이 2013년까지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에 3억7000만달러를 투입해 ABS(자동차와 가전제품에 쓰이는 내·외장재) 공장을 짓기로 한 뒤 올 들어 다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을 짓기 위해 7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해외 반도체 라인에 투자하는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그 다음달에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30억달러 안팎을 각각 중국에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이 돈으로 삼성과 LG는 각각 쑤저우와 광저우에 8세대 LCD(액정표시장치) 공장을 짓기로 하고 착공식을 가졌다. 현대기아자동차도 중국 투자 대열에 가세했다. 현대차가 베이징과 허페이에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데 이어 기아차도 6월 장쑤성 옌청시에 중국 3공장을 짓기 위해 첫 삽을 떴다. 약 12억달러가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다. 이들 기업은 인건비나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적의 입지 조건을 내세우는 국가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떠나는 기업 어떻게 잡나

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해외 진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투자와 고용 부진으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국내 경제를 생각하면 아쉬운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투자와 출자가 서로 다르다고 하면서 출자총액 규제와 순환출자 규제 도입을 외치고 이중 삼중의 그물망 규제로 기업들을 옥죄는 척박한 국내 투자환경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할 때”(김중석 홍익대 교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실제 35조원은 지난해 중앙정부 예산(309조원)의 1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하반기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를 놓고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가 연일 입씨름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큰 금액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말로만 대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외칠 뿐, 실제로는 성공한 기업들의 성과를 백안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것이 경제계의 불만이다. 집권 여당조차 대선 국면을 맞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일감몰아주기 규제’ ‘순환출자 규제’ ‘금융·산업 분리’ 등과 같은 새로운 규제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드라이브와 노사관계 불안 등으로 국내 투자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점이 문제”라며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기업들을 붙잡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 키코 피해 70% 책임” 판결 파장 2012.08.24 한국경제

키코(KIKO) 판결에서 법원이 관련 중소기업보다 은행의 책임을 더 많이 묻는 판결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23일 엠텍비전, 테크윙, 에이디엠, 온지구 등 4개 기업이 “부당한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시중은행 3곳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기업에 모두 136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기업 측이 주장한 손실액 가운데 60~7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0~5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기존의 판례들보다 은행의 책임을 더 많이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환율변동 방향이나 규모는 전문가로서도 예측하기 어렵고 계약기간이 길수록 예측 정확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은행이 기업의 이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중요한 내용인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의 위험성에 관해 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했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업도 검토를 게을리하고 은행의 권유를 그대로 따른 점과 계약 당시 금융위기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기업에 따라 손실액의 60~70%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에이디엠이 청구한 금액은 62억100만원이었고, 온 지구는 44억8700만원, 테크윙은 20억원, 엠텍비전은 10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앞서 이들 기업은 “2007년, 2008년 키코 상품을 거래할 당시 은행이 설명의무를 위반해 피해를 봤다”며 약 20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키코는 구매자인 기업과 판매자인 은행이 사고팔 권리를 각각 갖는 외환 파생상품이다.

이와 관련, 하나은행 법무팀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에서 일부 패소한 사건은 대개 스노볼 등 상대적으로 복잡한 키코 상품을 판매한 것인 데 비해 이번 사건은 그동안 100% 은행이 승소한 단순 키코 상품 판매 건이어서 의아하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에 재판부 입장이 달라진 이유를 상세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나은행은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곧 항소할 계획이다. 한국씨티은행은 “판결문을 며칠 후에 받아 볼 예정이어서 지금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곤란하다”고만 밝혔다.

시중은행들은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술렁이는 분위기다. 종전보다 판결 결과가 기업 쪽에 크게 후해진 데 대해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들이 모르고 상품에 투자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환차익을 볼 때는 별 말 없이 있다가 손실이 커지자 상품을 판 것이 잘못이라고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총 200여건의 1심판결 중 160건가량이 은행의 승소로 끝났다”며 “재판부가 달라졌다고 해서 판결이 180도 바뀐다면 법원 판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 키코(KIKO)

약정환율과 변동의 상한(knock-in) 및 하한(knock-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일정한 구간 안에서 변동한다면 약정환율을 적용받는 대신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정액의 1~2배를 약정환율에 매도하는 방식이다.

굴릴 곳 없는 보험사, 사활 건 '대출 세일'

2012.08.24 한국경제

대한·KDB생명 등 금리 낮춰...약관 한도 최대 95%로 확대
연체율 상승세...부실화 우려도

가정 주부인 현승연 씨(42)는 최근 한 대형 보험사에서 '저리 대출, 당일 입금'이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보험사에서 대출도 취급하나 싶었던 그는 상담 후 연리 7%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현씨는 “보험사에서 가급적 대출을 더 많이 내주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이 대출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면서 대출 이외의 투자처가 마땅치 않아서다. 대출자 입장에서 나쁠 게 없지만 추후 가계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생명 역대 최저 대출금리 적용

대한생명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최저금리를 연 4.31%(혼합금리형 기준)로 종전보다 0.5%포인트 인하했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오는 10월 사명을 한화생명으로 바꾸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우리 회사로선 역대 최저 금리”라고 설명했다.

대한생명은 이와 함께 삼성 현대차 등 10대그룹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저 연 5%짜리 신용대출 상품을 내놨다.

메트라이프생명은 금리연동형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한도를 환급금 대비 종전 90%에서 95%로 확대했다. 보험업계에선 그동안 대출한도를 환급금의 80~90% 정도로 제한해왔다. 이 회사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잡고 있어 부실 우려가 없다”며 “업계 최고인 95%로 확대해도 무방하다는 게 경영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KDB생명은 최근 '보험계약대출 서비스제도 개선'을 통해 대출금리를 최고 1%포인트가량 낮췄다. 또 휴일에도 대출을 내주는 시스템으로 바꿨다. KDB생명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무심사·무보증 방식인 데다 별도 수수료가 없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생보사뿐만 아니라 손보

증가하는생보사대출 (단위:억원)



업계도 '대출 앞으로'를 외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기납입 보험료의 최대 두 배까지 신용대출을 내주는 상품을 출시했다. 현대해상은 대출계약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금액별로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이례적인 행사를 다음달까지 진행한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대출 확대에 나서는 것은 운용자산 이익률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어서다. 보험사들은 총 620조원(대출잔액 106조원) 규모의 자산을 굴리고 있는데, 이익률이 올 들어 연평균 4%대로 떨어졌다.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금리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험사엔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며 “특히 장기상품을 많이 취급하는 생보사들이 역마진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대출 확대가 추후 부메랑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0.6%로, 4개월 연속 상승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 대출채권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낮다”면서도 “건전성 등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국세청과 한판 붙는다 2012.08.21 한국경제

해외법인 지급보증수수료 '법인세 폭탄'

LG전자·포스코 등 20여곳 조세불복 심판 청구...30여개사도 법률 검토
과세기준 변경에 반발...이의신청은 모두 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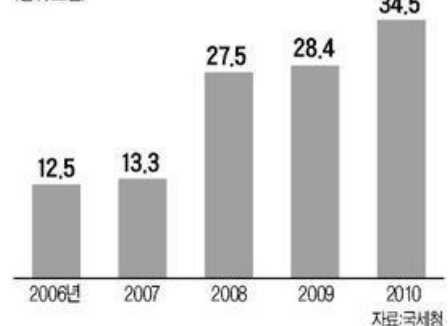
국내 20여개 대기업이 국세청의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수수료 과세 기준 변경에 따른 세금 추징에 반발해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하지만 LG전자 포스코 효성 풍산 등 대기업들은 즉각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 심판 청구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에 세금 추징을 당하지 않았지만 국세청의 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 향후 세금을 추징당할 가능성이 높은 30여개사도 소송을 위한 법률 검토에 돌입하는 등 국세청과 대기업 간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

◆OECD도 명확한 기준 없어

21일 세무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최근 국내 대형 회계법인 및 로펌을 통해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국세청이 지난 2월 한국 대기업 본사의 해외 현지법인 지급보증 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모형을 개발·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에 2006년분 법인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데 반발하고 있다.

해외 지급보증 수수료는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 공장을 짓거나 투자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국내 본사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대가로 받는 돈이다. 수수료율에 따라 소득 금액이 달라지고 과세 기준도 달라진다. 지급보증 수수료 정상가격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규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Arm's Length Price'(한 팔 길이의 가격)이라고 칭하고 있다. 즉 국가별, 상황별로 탄력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하면 된다는 뜻이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액 (단위:조원)



문제는 국세청이 지난 2월 '해외 현지법인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 모형'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이

모형은 기업들의 자체 수수료율(0.2~0.5%)보다 훨씬 높은 1.0~2.7%를 제시했고, 국세청은 그 차액에 대해 과세를 결정했다. 특히 2007년 이후 발생한 수수료에 대한 세금 추징까지 남아 있어 기업들의 부담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올해 2006년분 세금을 추징당한 20여개사뿐 아니라 추징당하지 않은 30여개사가 회계법인 등을 통해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도 향후 세금을 추징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률 검토에 착수한 기업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등 조세심판 청구에 가담하지 않은 대기업 계열사들도 포함돼 있다.

◆재정부, 규정 마련 착수

국세청은 기업들이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 결과적으로 본사의 이익을 축소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이전가격(이익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내고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익을 옮겨가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 12조5000억원에 불과했던 해외 법인 지급보증 액수는 2009년 28조4000억원으로 늘었고 2010년에는 34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수수료율의 변화에 따라 세금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국세청이 기준을 바꾸면서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이번에 조세심판 청구에 나서는 업체 중에는 향후 5년간 추가로 낼 세금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회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지급보증 수수료 정상가격 산출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업계와 국세청 등의 의견을 수렴, 시행령 규정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보증으로 경감된 이자비용, 즉 보증·피보증 기업 간의 신용등급 차이에 따른 가산 이자율 차이를 일컫는 OECD 국제조세조정 가이드라인상의 용어. 이 이자율 차이만큼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것이 소득 금액 및 법인세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 외국에 갚아야 할 부채 3분기 연속 증가 2012.08.21 한국경제

단기외채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한국이 외국에 갚아야 할 빚이 3분기 연속 늘어났다.

특히 외국에 서둘러 갚아야 할 단기 부채가 다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21일 내놓은 '분기별 국제투자대조표'를 보면 6월말 현재 한국의 대외채무는 4천186억달러로 3월말보다 61억달러 늘어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외채무는 3분기 연속 확대됐다.

대외채무는 지난해 12월말 3천984억달러로 같은 해 9월말보다 28억달러 증가한 데 이어 올해 3월말엔 4천125억달러로 142억달러가 늘어났다. 특히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단기외채가 크게 확대하며 전체 채무

증가세를 이끌었다. 단기외채는 6월말 현재 1천414억달러로 3월말보다 56억달러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외국은행의 한국지점(외은지점)이 단기외채를 많이 차입했기 때문"이라며 "7월에는 외은지점의 단기외채가 다시 줄어드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단기외채를 준비자산으로 나눈 '단기외채비율'은 45.3%로 3월말 43.0%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총 대외채무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율인 '단기외채비중'도 33.8%로 같은 기간 0.9%포인트 확대됐다.

장기외채는 외국인의 국채투자 감소에도 통안채·일반기업채권 투자가 다소 증가해 3월말보다 5억달러 늘어난 2천772억달러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단기외채 비중 등 건전성 지표는 다소 올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6월 중 대규모 국채 만기상환에도 외국인 투자자가 상환액 대부분을 (통안채 등) 국내에 재투자해 외채 감소가 제한됐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인 대외채권 잔액은 6월말 현재 5천67억달러로 3월말보다 24억달러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총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 잔액은 881억달러로 3월말보다 84억달러 축소됐다. 6월말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 잔액은 8천767억달러로 3월말 대비 205억달러 줄었다. 매매·차입 등 거래로 인해 74억달러 늘었지만 추가하락이나 원화가치 절하 등 비거래요인이 279억달러 감소효과를 냈다. 주식과 채권을 포함한 외국인의 증권투자는 3월말보다 297억달러 적은 5천86억달러로 거래요인도 21억달러 줄고 비거래요인도 276억달러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대외투자 잔액은 7천701억달러로 3월말보다 25억달러 늘었다. 대외투자에서 외국인투자를 뺀 순국제투자 잔액은 -1천65억달러로 3월말 -1천295억달러보다 230억달러 늘었다.

기재부는 외채 추이와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점검해 대외건전성과 관련된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니 모바일 부문 1천명 감원 2012.08.24 Tech IT

소니가 모바일 사업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천명의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고 매셔블이 보도했다. 소니는 스웨덴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모바일 사업부문을 일본 동경으로 이전하고 인력도 전체의 15% 가량인 1천명을 감원할 예정이다.

소니는 지난 2011년 10월, 에릭슨과의 합작 법인인 소니-에릭슨을 완전히 인수한 바 있다. 에릭슨과의 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관련 사업부 정리에 나선 것. 일본으로 통합 흡수된 모바일 사업부문은 스마트폰을 비롯 플레이스테이션과 기타 홈 엔터테인먼트 제품 통합 작업에 힘을 기울일 전망이다.

사업장 이전과 감원은 오는 2014년 3월까지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니의 이러한 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니의 모바일 사업부문 시장 점유율은 채 2%가 되지 않는 등 좀처럼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가트너의 집계에 따르면 소니는 스마트폰 부분에서 세계 톱 10 제조사에도 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HP · 델, PC 부문 전통의 강호들이 쓰러진다 2012.08.24 전자신문

세계 PC 시장 악화로 HP와 델의 실적이 곤두박질하고 있다. 지난해 유럽발 불황과 태국 홍수 등으로 인해 실적에 큰 타격을 받은 뒤로 좀처럼 회복 기미가 없다. 시장조사업체 IDC 밥 오도널 애널리스트는 “PC 업계가 상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상상 이상”이라며 “하반기에는 다소 개선 조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를 방증하듯 23일 HP는 3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떨어진 297억달러, 순손실은 89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손실은 지난 2008년 인수한 E.D.S에 대한 대규모 대손상각이 이뤄져서다. 주요 분야별 매출도 줄줄이 하락세를 기록했다. 퍼스널 시스템 그룹의 매출은 10%가 떨어진 86억달러를 기록했다. 개인용 제품의 매출이 12%, 기업용 제품의 매출이 9%가 떨어졌다. 특히 데스크톱 사업부는 6%, 노트북 사업부는 12%의 매출 하락을 기록했다. 이미징 및 프린팅 그룹의 매출 역시 3% 떨어진 60억달러를 기록했다. 기업용 서버와 네트워크, 스토리지 매출은 4%가 떨어진 51억 달러를 기록했다.

델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 하루 앞서 발표한 2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가 떨어진 144억8000만달러, 순익도 18%가 떨어진 7억32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PC 시장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토피카 캐피탈의 브라이언 화이트 애널리스트는 “PC 부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HP와 델은 PC 사업부를 접고 엔터프라이즈 사업부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자은행 UBS의 스티븐 미루오비츠 애널리스트는 “마진율이 낮은 사업부문은 축소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니, 리버풀 게임 스튜디오 폐쇄...게임업계 구조조정 2012.08.24 전자신문

소니가 영국 리버풀 개발 스튜디오를 폐쇄하기로 했다고 가디언이 23일 보도했다. 1984년 설립된 이 스튜디오는 1994년 소니에 인수된 후 플레이스테이션 인기 게임을 개발했다. 소니는 “흥미로운 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다른 스튜디오에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은 조치로 우리는 더 나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버풀 스튜디오 폐쇄는 캐주얼 게임 개발사 팝캡이 시애틀 본사 직원 50명을 감원하고 아일랜드 지사를 폐쇄하기로 발표한 직후 나온 것이다. 아일랜드에서도 100명이 직장을 잃었다. 노르웨이 게임 개발업체 편컴 역시 감원조치를 발표했다. THQ도 20명 이상을 해고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게임 산업이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진단한다. 스마트기기 보급으로 무료 게임이 늘면서 전혀 다른 형태의 게임 개발 스튜디오와 스태프, 개발 일정 등이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너무 급속하게 일어나 미처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

게임전문잡지 MCV 편집장 마이클 프렌치는 “편컴은 멀티플레이어게임(MMO)을 내놨지만 부분 무료 게임에 밀렸고 팝캡도 부분 무료 게임이 자신들의 캐주얼 게임을 밀어낸 점을 순수히 받아들였다”면서 “소니 역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뒤쳐진 사업부를 정리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새로운 분기가 시작되기 전 사업부를 정리하려는 경영진 때문에 8월 31일 전에 해고가 한꺼번에 몰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게임업체 마스터트로닉 설립자 앤디 페인은 “이 같은 일은 비극이지만 현재의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게임 유저들은 스마트기기를 통해 다양한 경로로 게임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빠르게 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① 경쟁자를 압도할 상품의 차별화
- ② 목표 마진율을 공개적으로 정하라
- ③ 자체 상표 강화... 유통비용 절감

글로벌 경기 불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유통기업들이 창고형 할인점인 '코스트코 따라잡기'에 나서고 있다. 연평균 20~30%씩 성장하며 지난해 국내 7개 매장에서 매출 2조원을 넘기며 잘 나가고 있는 코스트코를 정조준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코스트코는 임대료가 싼 비(非)상권 지역에 매장을 열어놓고, 생산공장에서 상품을 바로 납품받아 인테리어를 꾸미지 않은 대형 창고에서 대용량으로 진열·판매한다. 또 카테고리별로 1~2개씩 고품질 제품만 3000~4000개 선별해 최저 가격으로 판매하고, 연간 일정금액을 내는 회원고객만 입장토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세계는 코스트코의 이런 창고형 할인점을 본떠 2010년 '이마트 트레이더스'(Traders)를 열었다. 지난해 7개 점포에서 65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내년까지 3개 점포를 더 열 계획이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총 4000여개 제품을 코스트코보다 3~5% 정도 싼 가격에 파는데, 비회원들도 이용할 수 있다.

롯데마트는 올 6월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인 '빅마켓'(Vic Market)을 열었다. 개점 한 달 만에 1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연회비(3만~3만5000원)를 내는 회원을 8만5000명이나 확보했다. 당초 1년 내 10만명 회원 유치 목표를 4개월로 대폭 단축을 자신하고 있다.

'창고형 할인점' 매장의 인기는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더 싸고 더 품질 좋은 물건을 따져서 사는' 방향으로 실용화되고 있는 게 큰 이유이다. 이런 소비 가치 전환 현상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수만 개의 제품을 한데 모아 파는 대형마트의 제품 라인업을 최대한 잘게 쪼개서 핵심 대표 상품을 발굴한 다음, 해당 제품의 판매 규모를 키워 가격을 떨어뜨려 소비자들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최근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슈퍼·백화점(1990년 이전), 대형마트(1990년대~현재), 월마트·까르푸 등 외국계 대형마트(1990년 후반~2000년대 중반)라는 3단계를 거치면서 유통업계에서 가격 혁신을 경험했다. 이제 새로운 단계로서 '창고형 할인점'에 도달한 것이다.

국내 유통기업들이 창고형 할인점으로 성공하려면 몇 가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경쟁자를 압도할 제품, 즉 '카테고리 킬러'(category killer)를 만들기 위해 차별화된 공급업체 발굴이 필수적이다. 코스트코의 최대 강점은 공급망을 글로벌화했다는 점이다. 국내 매장에서 판매하는 전체 제품 가운데 30% 정도는 외국에서 수입한 제품이라는 사실은 큰 매력이다. 한미 FTA 등이 활성화할 경우 수입품 가격이 더 떨어져 한국코스트코의 경쟁력은 더 강화될 것이다.

국내 유통기업들은 이를 위해 같은 계열사부터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예컨대 롯데백화점에서 제철이 지난 명품제품은 다른 아웃렛몰에 내다 팔기보다 '빅마켓'에서 저렴하게 팔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해외의 우수 공급망을 찾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둘째, 제품 마진율을 설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유통기업은 15% 마진율을 정해놓고 있는 코스트코와 달리 마진율을 공개적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다. 마진율을 정할 경우, 제품을 둘러싼 당사자들이 동반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즉, 대기업과 협력사가 마진율을 정해놓는다면 정확한 목표이익을 설정할 수 있는데,

목표초과 달성 시 초과달성분을 공유하는 이익 공유제를 실현할 수 있다. 마진율을 대기업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바꾸면, 목표이익이나 초과달성분 공유를 제대로 실천하기 어렵다.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최대 혜택을 제공하려면, 대기업과 공급업체(협력사) 간의 진솔한 협력과 합심이 전제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체 상표브랜드(PB제품)를 강화하면서 유통비용을 더 절감해야 한다. 코스트코의 경우, 자체 PB브랜드인 '커크랜드 시그니처' 제품이 전체 매출의 20%나 차지한다. 다른 브랜드보다 더 값이 싸고 품질이 좋은 PB제품은 불황기에 소비자들의 지갑을 가장 많이 여는 '효자 상품군(群)'으로 유력하다.

[Weekly BIZ] 최대 소셜게임사 '징가' 추락 뒤엔 직원 뚫 뺀 CEO의 탐욕이...

2012.08.17 조선일보



주가 5분의 1토막... 징가에 무슨 일이

소셜 4대천왕의 추락

월 사용자 3억명, 전도유망 게임업체 / 실적 악화로 주가 폭락

창업자인 CEO의 과욕

작년 상장 앞두고, 직원들 스톡옵션 박탈

자기주식은 상장 후 매각... 2억 달러 가까이 챙겨

시장의 흐름도 놓쳐

SNS에서 모바일로 게임시장 중심 이동

변화에 대응 못 해

세계 최대 '소셜 게임(social game)' 기업인 징가(Zynga)가 수렁에 빠졌다. 징가의 주가는 이달 17일 현재 2.9달러로 최고가(올 3월 2일 14.7달러)의 20%를 밑돈다. 올 2분기 실망스러운 실적으로 반등 기미도 안 보인다. 1년 전 징가는 페이스북·링크드인(LinkedIn)·그룹폰(GroupOn)과 더불어 미국에서 뜨는 '소셜 기업 4대 천왕(天王)'이었고, 그중에서도 가장 유망한 기업으로 첫손 꼽혔다. 게임 벤처로 전도양양(前途洋羊)하던 징가는 왜 갑작스럽게 추락하고 있을까. 그 원인을 분석했다.

◇사면초가 빠진 세계 최대 소셜게임 기업

마크 핀커스(46) 현 CEO가 2007년 창업한 징가는 '텍사스 홀덤 포커'라는 카드 게임으로 시작해 '마피아워즈' '시티빌' 등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소셜 게임' 전문 회사다. '소셜 게임'은 여러 사람이 함께할수록 게임 진행이 수월해져 친구들과 게임을 끌어들이는 특성이 있다. 징가는 이를 잘 활용해 '중독성 있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로 정평 났다.

2009년 4월 징가는 월간 사용자 4000만명을 확보하며 세계 최대 소셜 게임 회사로 떠올랐다. 같은 해 6월 징가는 농장 경영 게임 '팜빌(FarmVille)'을 내놓았다. 이 작품은 소셜 게임 최초로 하루에 2000만명이 동시에 즐기는 최대 히트작이 됐다.



▲ 마크 핀커스 징가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6월 2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신작 게임과 새로운 게임 플레이 방식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 블룸버그 뉴스

이후 2년간 징가의 경영실적은 급상승했다. 2009년 2억5000만달러였던 매출은 2010년 5억9700만달러로 배 이상 늘었고, 2010년 순익은 9080만달러를 기록했다. 징가는 게임 내 아이템 판매에서 벗어나 쿠폰 판매·게임 내 광고·장난감 판매 등으로 수익원을 다변화했다. 인터넷 시장조사 기업 이마켓터(eMarketer)는 지난해 "소셜 게임은 미국 인터넷 사용자의 4분의 1 이상이 즐기는 시장이 됐다. 징가의 발전 가능성은 무척 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사면초가(四面楚歌)다. 주가 폭락 외에 일부 주주들은 "징가의 경영진이 올 2분기 실적 악화를 알면서도 실적 악화를 숨기고 투자자들을 속여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다. 경쟁 게임사인 일렉트로닉 아츠(EA)는 징가의 게임 '더 빌(The Ville)'이 자사의 '심즈 소셜'을 표절했다며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A에서 스카우트된 최고운영책임자(COO) 존 샤퍼트는 1년 만에 회사를 떠났고 직원 이탈도 줄을 잇고 있다. 2억달러를 들여 인수한 게임사 OMGPOP의 경영은 인수 전보다 더 악화됐다.

◇ 리더십, 시장 대응, 조직 문화에서 완패

징가의 추락은 조직 문화, CEO, 시장 예측 등 세 측면에서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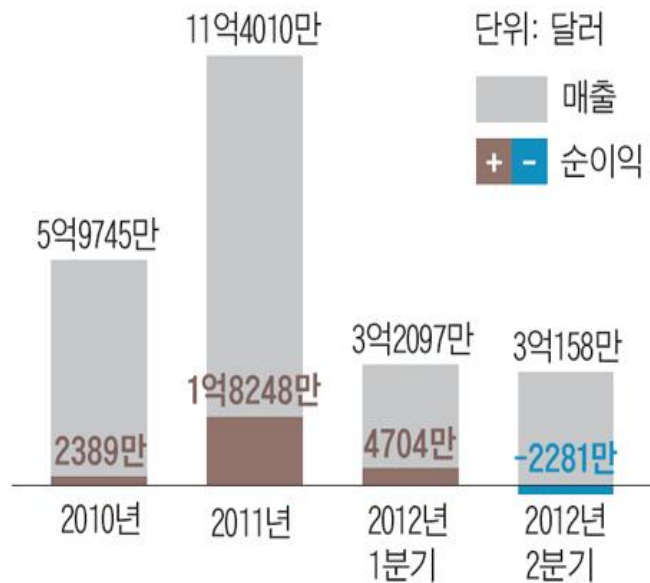
① 혁신 무시하는 조직 문화

펜실베이니아대를 거쳐 하버드대에서 MBA를 마친 핀커스 CEO는 투자 전문사 컬럼비아캐피털에서 28세 나이에 부사장까지 맡을 정도로 유능했다. 그러나 상사에게 대드는 지나치게 강하고 괴팍한 성격으로 악명높았다. 퇴직한 징가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핀커스는 회의 자리에서 종종 "나는 혁신은 원하지 않는다" "너희는 경쟁사 직원들보다 낮지 않다" 등의 말로 직원들을 모욕했다. 핀커스는 또 게임을 돈벌이 도구로만 볼 뿐 게임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직원은 "징가의 암묵적인 모토는 '사악해져라(Do Evil·구글의 기업 모토인 'Don't be Evil'을 비튼 것)'였다"고 했다.

② CEO의 탐욕과 무죄수

핀커스는 지난해 말 상장을 앞두고 일부 직원에게 이미 부여했던 스톡옵션을 박탈했다. 징가는 유능한 직원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임금 대신 스톡옵션을 많이 부여했는데, 정작 상장 때가 되자 이를 빼앗은 것. 핀커스 본인은 징가의 주가가 12달러까지 오르자 1650만주를 내다 팔아 1억9800만달러를 챙겼다. 벤처 캐피털 엘리베이션 파트너스의 공동창립자인 로저 맥나미(McNameee)는 "징가는 뛰어난 기업가 정신의 상징이 됐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창업자의 탐욕'을 다루는 수업 연구 사례가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징가의 경영 실적



자료: 미국증권거래위원회

③ 시장 변화에 뒷북 대응

징가는 게임 시장이 페이스북 등 SNS로 넘어가는 흐름을 파악하고 시장에 맞는 게임을 연달아 내놓으며 성장했다. 하지만 게임 시장의 중심이 다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가는 데는 대응과 변신 모두 느리고 소극적이었다. 최근 OMGPOP 등 모바일 게임 전문 기업을 인수하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별 성과가 없다. '소셜 혁명'을 타고 성공했지만, '모바일 혁명'에 무너지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 한 모바일 게임 업체 대표는 "징가가 기존 PC용 소셜 게임 분야에 집착하는 동안 많은 경쟁 기업이 모바일에서 성장했고, 이런 기업들이 징가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 '조직의 영혼' 부활 없이는 재건 난망

징가의 최고 경영진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전략 수정에 나섰다. 이달 10일 징가는 직원들에게 추가 스톡옵션과 보너스 지급 계획을 내놓았다. 직원들의 회사 대거 이탈 움직임을 막기 위한 교육책이다. 직원들의 사기는 여전히 낮다. 한 징가 직원은 "회사 문화도, 임원들도 증오스럽지만 상장 후 대박만 보고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서 헛수고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명우 한양대 특임교수는 "징가는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점프하는 데 실패했다"며 "무엇보다 CEO부터 말단 직원까지 회사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조직의 영혼(spirit)'을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수석연구원은 "징가의 실패는 급변하는 IT산업계에서 기만한 시장 대응과 조직원 간의 화합, 리더의 중요함을 깨우쳐주는 반면교사인 셈"이라고 했다.